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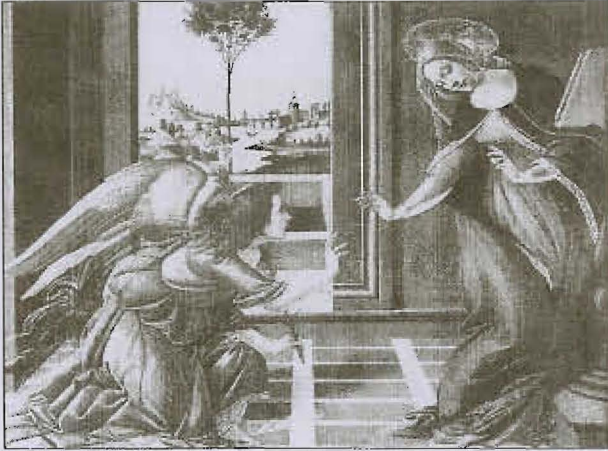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4주일
제32권 4호(나혜) 2011.12.18

[묵상]



수태고지 <15c, 보티첼리, 우피치 미술관, 피렌체, 이탈리아>

저희는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로 깨어 기다리며 지내자고,
회개를 통해 각자의 죄를 뉘우치고
세상 것에 현혹된 마음을 하느님께 되돌려
빛만을 바라보고 빛만을 따르는 삶이
저희의 일상이고자 다짐했습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는 은총을 가득히 받았으니 기뻐하여라.
성령이 너 안에 오시고 그 성령이 사람이 되시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마리아는 겸손과 믿음으로 아뢰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준비하고 바랐던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뛸니다.”

마리아의 찬송과 기쁨과 설렘이
저희의 것과도 같기를 희망하며
주님의 탄생예고를 들은 오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구원의 신비가
지금, 여기에서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제주) M.E. Sharing(3제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 울뜨레아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 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 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 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 403-7345
사무실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60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김순선 아녜스
특전미사	(생) 정해홍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 김상익 베드로 & 김경옥 테레사, 유점이 베로니카, 박부원, 오진 베드로, 신대동 요아킴, 고준희 제임스, 박지연, 엄익찬 안토니오, 이정기 클레멘스 & 이복래 마사 & 김홍배 루카, 김시형 시릴로, 박영준 안토니오, 박수권 스테파노, 이석중 & 박남길, 이범창 & 박율당, 정용선 시메온 & 김종규, 김순선 아녜스, 김두철 아브라함, 양노엘 사제 (생) 정규숙 안나 가정, 이승훈 미카엘, 김현오 니콜라스, 이명순 크리스티나 & 이명렬 라파엘 가정, 민석준 토마스 & 영준 마르코, 안상훈 라파엘, 윤화경 바오로 & 윤경옥 실비아 가정, 오혜숙 루시아 & 오세원 아타나시오의 대자녀들, 이민상 사도요한 & 이순자 비비안나 가정, 토런스북구역 가정들, 이복임 엘라사벳 & 이용식 베드로, 홍영희 메리안 & 셋 드레설, 김상규 니콜라오 & 김성민 카타리나 가정, 안나회 회원들, 서완덕 부르노 & 은혜 이사벨라, 정학순 발라라, 김영길 안드레아, 이규상 클레멘스 & 홍승현 페로니카 가정, 문밥티스타 수녀, 조옥중 사도요한 사제,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백삼위 공동체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 하권(2 Samuel) 7,1-5.8ㄷ-12,14ㄱ.16

화답송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6,25-2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이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 음 루카(Luke) 1,26-38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23	123	123
봉헌	259	259	257
성체	246	246	290
파견	129	129	132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말씀의 그리스도론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부패는 사흘이 지난 후에 시작되는 것이었으므로, 성경 말씀은 부패가 시작되기 이전에 부활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오로 성인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전수하면서(1코린 15,3 참조)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느님 말씀의 창조적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이 하느님의 능력은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파스카의 계시가 지닌 해방적인 내용입니다. 파스카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악과 죽음의 파괴적 힘들을 소멸시키시는 삼위일체적 사랑의 능력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이러한 본질적 요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와 새로운 창조와 구원 역사 전체의 깊은 단일성을 관조할 수 있습니다. 표상을 통해 표현해 본다면, 우주를 하나의 “책”에 비유하여 -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 “창조물의 ‘교향곡’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저자의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향곡 안의 어떤 부분에는 음악 용어로 ‘솔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 곧 단 하나의 악기 또는 목소리에 맡겨진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품 전체의 의미가 거기에 달려 있게 됩니다. 이 ‘솔로’가 예수님이십니다. …… 하느님의 아드님은 당신 자신 안에 땅과 하늘을, 창조물과 창조주를, 육과 영을 요약하십니다. 그분은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는 저자와 그의 작품이 혼동됨이 없이 서로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종말론적 차원

14). 이 모든 것으로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최종적 말씀이시라는 의식을 표현합니다.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묵시 1,17)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와 역사에 그 최종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이 종말론적 리듬 안에서 시간을 살도록, 하느님의 창조 안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새롭고 결정적인 계약인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1티모 6,14; 티모 2,13 참조)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교부들이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중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의 고유성은 계시의 절정이며 하느님 약속의 실현이고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만남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계속>

‘하느님의 도구’

우주 만물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피조물 중 하나이며 창조주의 목적을 지니고 이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 속에서 드러난 창조주의 창조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위한 창조주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도구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교만, 자만심으로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느님의 길을 막아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느님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나 때문에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느님의 도구라는 것을 신앙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도구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려 합니다.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심지어는 하느님까지 자기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 인간이 하느님의 도구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인간 삶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시는 신비로운 계획을 감행하시면서 인간측의 역할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 역할 중에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바로 성모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당신이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기꺼이 하느님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며 불합리한 요구에도 겸손하게 순명함으로

써, 하느님을 세상에 낳아주는 하느님의 그릇, 하느님의 구유가 되셨습니다.

겸손은 우리 인간에게 필수적인 덕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직시하여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직시하려 하지 않고,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생각에 불합리해 보이는 하느님의 뜻에도 순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논리와 하느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논리가 하느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모님처럼 늘 곰곰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여정입니다. 또한,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보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인간이 모르는 차원에서 한 차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이 신앙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는 힘든 과정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에게 닥치는 힘든 과정들을 수용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불합리한 분도 받아들이는 그런 것 아닙니까? 리는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영호 사도요한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세실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성탄 밤미사	성탄 학생 미사	성탄 낮 미사
해설자	최진수 에우세비오	이호미 엘리사벳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유철희 바오로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현자 안나	이순자 비비안나	황지영 안젤라
제물봉헌자			P.V. 3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대림 제4주일

어느새 대림환에 마지막 흰색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흰색에는 기쁨, 환희, 희망, 순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성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비천한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시니,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 ◆ 대림 합동 판공성사를 못보신 분들은 23일(금)까지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본당설립 30주년 기념행사를 끝내며 드리는 감사미사 : 오늘 주일(18일) 오전 11시. 미사중에 ‘초봉헌’, ‘성경통독 성경읽기표 봉헌’, ‘묵주기도 30만단 봉헌’과 본당의 30년 역사 소개가 있습니다.
- ◆ 성탄 밤미사 : 24일(토) 오후 9시(오후 7시 미사 없음)
- ◆ 성탄 대축일미사 : 25일(주일) 오전 9시30분 한국어 학생미사, 오전 11시 낮미사
- ◆ 송년미사 : 31일(토) 밤11시30분(오후 7시 미사 없음)
-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2012년 1월1일(주일) 오전 9시30분 한국어 학생미사, 오전 11시 낮미사

-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전신자 1년간 성경통독을 끝냈습니다.
 - 지난 1년간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오후 두차례씩 열성적인 강의로 성경통독을 지도해주신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 “고맙습니다.” 또 클래스를 맡아 진행한 종교교육분과 위 봉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요셉회 무료 음식봉사

- 일시 : 오늘 주일(18일) 낮미사 후 친교장
- 전신자들에게 무료로 치킨테리야키를 대접합니다.
- 문의 : 요셉회장 신중철 아브라함 ☎(310)619-4343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설립

뜻있는 본당 교우가 장학기부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에따라 새해 2012년부터 백삼위 장학회를 설립합니다.

- 수혜대상 : 하이스쿨 12학년, 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로 교회봉사와 학교성적 우수한 학생
- 수혜인원 : 매년 8~10명
- 신청기간 : 2012년 4월1일~2012년 5월15일
- 장학금 지불일 : 2012년 8월1일 이후
- 신청서 : 2012년 2월1일부터 사무실에 비치
- 문의 : 본당 신부님

◆ 성탄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18일) 감사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소공동체 구역장/반장, 게시판 안내 참조

◆ 새해(2012년/임진년/나해) 본당 달력을 선물로 드립니다.

- 한국가톨릭교회의 역사와 문화재 성당을 주제로 한 2012년 본당 달력을 교우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전례력, 독서, 복음, 축일, 절기 등을 담은 새해 달력은 신심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24일부터 배포
- 달력제작에 도움을 주신 광고후원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당 성령기도회 모임 매주 목요일로 환원

- 성경통독으로 그동안 토요일로 바뀌었던 본당 성령기도회 모임이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8시로 다시 돌아옵니다.
- 기도생활은 우리 신앙인들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문의 : 성령기도회장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18일(주일) : 요셉회 (치킨테리야키 전신자들에 대접) 주일학교 10학년(치킨 케사디아)
- 12월25일(성탄대축일) : 소공동체(떡과 과일 나눔)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권진열	권태만	금동군	김관기	김상규
	김영경	김영길	김옥찬	김윤진	김 은	김일선
	김정희	김종문	김풍길	김현숙	민순선	민형기
	송영희	송재훈	양영관	엄세중	오명섭	오세원
	원건희	유근우	유영균	윤희동	이정용	이현주
	이호세	이희영	이일길	장영진	장춘수	정규숙
	정상문	정해홍	주영석	주용범	최미열	최의수
	최현찬	추서희	하정화	한창주	황인중	한길선례
	합계 : \$6,045					
미사헌금 : \$2,838.75						
성전헌금	강인모	권진열	권태만	김관기	김영길	김윤진
	김일선	김정희	김종문	김풍길	김현숙	민형기
	양영관	엄세중	오세원	원건희	유근우	유영균
	윤희동	이정용	이현주	이호세	이희영	장춘수
	정규숙	정상문	정해홍	주영석	주용범	최미열
	최의수	하정화	한창주	황인중	한길선례	
	합계 : \$3,205					
감사헌금 : 박영식	김풍길	박씨니				

공지사항

◆ **목주기도 30만단 봉헌 142% 초과달성 ... 총 425,068단**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아 금년 1월15일부터 시작한 신자들의 목주기도 30만단 바치기가 12월11일 마감일 현재 총 42만5천68단을 기록함으로써 목표를 142% 초과 달성했습니다. 각 구역별 봉헌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런스 동구역 : 61,092단 ● 토런스 서구역 : 81,467단
- 토런스 남구역 : 40,139단 ● 토런스 북구역 : 32,695단
- 하버/카슨 구역 83,965단 ● P.V.구역 : 99,147단
- 기타 : 26,563단 ▶ **총 425,068단**

◆ 주일학교/한국학교 겨울방학

- 12월25일(성탄대축일)/1월1일(천주의 성모마리아대축일) 두주일, 수업 없습니다.
- 학생미사(오전 9시30분)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장 ☎(213)258-8665

◆ '십자가의 길' 기도문 공용 비치

- 지향에 따라 주제가 다른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공용(성당 비품)으로 비치하여 두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아 새로 건립한 '야외 십자가의 길'에서 기도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비치장소 : 성모상앞 돌의자 사물장, 사무실
- 주제 : ♡성경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김수환(목상)/장익(염음) 십자가의 길 ♡청소년이 바치는 십자가의 길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 2011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 중에 내주세요.

- 넉넉잡은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본인 현금기록(2011년) 조회 가능.

남가주 소식

◆ 예수회 성경대학 2학기과정 안내

- 일시 : 2012년 1월 6,7,8일 오후6시30분~9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본당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 수강료 : 1일 \$20, 3일 \$50 ☎(213)249-3603 교영희 테레사

◆ 성 아그네스 성당내 이나시오 카페 오픈

- 커피 감정사인 LA 아그네스 성당 최대제 신부가 기도와 기도를 통합시킨 커피를 만들어 냅니다. 아그네스 성당에 오시면 핸드드립 커피를 드실 수 있고 로스팅 된 원두커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323)731-4433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지경수 마태오 972-8292 12/9(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12/10(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2/16(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근식 미카엘 316-7608 12/10(토) 오후 5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12/12(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엄영숙 마리아 373-5662 12/9(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12/8(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12/9(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정동호 하삼바오로 780-9055 12/23(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서창호 바오로 257-1784 12/1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2/9(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배진영 프란치스코 377-2228 12/9(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2/9(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12/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지키지 못한 약속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던 시절 이렇게 기도했다. “정의로운 기자가 돼서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당 일도 열심히 하고 하느님께 저를 바칠 터이니 기자만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신참 기자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새벽별 보고 출근해 달떠야 퇴근했고, 예고 없는 사건 사고에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주일 미사를 못 볼 때도 있었다. 가끔은 입사 전 주님과 한 약속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여유가 생기면 생각할 일이라고 쳐놓았다. 이제 기자가 된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아직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경찰 기자 생활만 벗어나면 여유가 생길 것 같았는데 차장이 되고 부장이되니 신경 쓸 일이 더 많고 바쁘다.

난 언제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간혹 바쁘게 사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듣는다.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리라는 충고도 듣는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지금은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숨을 헐떡이며 도달할 종착지가 어떤 곳일지 불안할 때도 있다. 승진을 위해, 좀 더 큰 집과 차를 위해, 아이들의 교육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애를 쓰지만 가끔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내 마음은 무얼 바라는지 잊고 사는 것 같다.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느님의 순위가 자꾸 밀려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다. 세상의 흐름따라 부초(浮草)처럼 떠다니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 공허하고 불안하다.

동양적 관점으로 표현하면 난 우화등선(羽化登仙), 선비처럼 살고 신선처럼 죽고 싶었다. 소신을 지키며 검소하게 살다 마지막엔 몸과 마음에 걸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갖고 싶은 것과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움켜쥐려 한 손이 무겁다. 몸과 마음의 살이 지나치게 기름져 번지르르 하지만 정작 내면은 외롭고 쓸쓸하다.

더 멀어지기 전에 하느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영영 길을 잃을 것 같기도 하다. 사람은 죽기 마련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건 하느님이시라는 걸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가끔은 잊고 살 때도 있다. 대림초가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세상의 욕심 대신 주님을 찾는

눈길이 밝아지고 주님의 품안에서 살고 있음을 심장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돌아갈 곳은 하느님 품안이란 걸 믿으며, 더 늦기 전에 하느님과의 약속도 지키고 싶다.

◆탁은수 베드로 / 부산MBC 뉴스총괄팀장

아이에게 성탄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산타클로스, 트리장식, 성탄카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타클로스’는 270년 소아시아 지방 리키아의 파타라에서 출생한 니콜라스 성인을 기리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평소 자선에 힘썼던 성인은 미라의 주교가 된 이후에도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는데요. 그가 ‘남몰래’ 베풀었던 자선 행위들을 그리워한 마음들에서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19세기 즈음 성탄 전야에 썰매를 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와 착한 아이들의 양말에 선물을 넣어준다는 얘기로 각색되어 전 세계로 퍼집니다. 바야흐로 온 세상 어린이들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성탄절 트리는 고대 이집트의 동지제에서 나뭇가지를 장식한 일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로마의 동지제 행렬에서 월계수 가지를 장식하여 행진했던 성목(聖木) 숭배가 기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1605년 독일 스트라스북의 트리 장식이 원조입니다. 이후 공장 근로자들은 매년 성탄절에 전나무에 꽃과 과일, 과자 등을 매달아 장식하였고 이것이 프랑스와 북유럽으로 번져 미국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성탄절 카드를 처음 발송한 이는 1864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탄의 의미를 가장 귀하게 새긴 ‘성탄썰’의 풍습은 1903년 덴마크의 우체국 직원 아이날 홀보넬이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핵환자들을 돕기 위해 제작한 것이 기원이라는 사실도 얘기해 주세요.

◆도움말 : 장재봉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